

2. 인문계열 문항해설

[문항정보]

| 일반정보 | | |
|----------------------|---|--------------------------------|
| 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 |
| 전형명 | 모의논술 |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인문·사회계열/문제1 | |
| 출제 범위 | 교육과정 과목명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 독서, 작문 |
| | 핵심개념 및 용어 | 대나무, 아이, 양육, 현대경제, 독점, 자율, 시장 |
| 예상 소요 시간 | 60분 | |

문항 및 자료

<가>

정월 19년 봄에 발취과에 급제하여 교서랑 벼슬을 받았다. 처음 장안에 와서 빌려 살 곳을 구하다가 상락리의 작고하신 관상국 댁의 동쪽 정자에 거처하게 되었다. 다음날 정자의 동남쪽 모퉁이로 산책을 나갔다가 거기에 대나무 숲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가지와 잎사귀가 말라 죽어 불풀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관상국 댁의 늙은 하인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관상국께서 손수 심으셨던 것입니다. 관상국께서 집을 내놓아 다른 사람이 빌려 살게 되었는데, 그 후로 대나무들이 한 발 길이로 자란 것도 없고 그 수도 백(百)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못풀과 나무들이 그 속에 섞여 나서 무성히 잡생하게 되어 대나무는 없어진 듯한 마음까지 갖게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들이 일찍이 훌륭한 분의 손을 거쳤으나 천하고 속된 사람들에 의해 이처럼 버려지게 되었음이 애석하였다. 이에 무성한 초목은 잘라내고 더러운 흙은 긁어내고 대나무 사이를 틈주고 휘어진 가지는 잘라 주고 그 아래 흙을 복돋아 주었는데,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일을 끝냈다.

이렇게 하여 해가 뜨면 맑은 그늘이 생기고 바람이 불어오면 맑은 소리가 들리며, 휘청휘청 기쁜 듯하여, 마치 감정이 있어 은덕에 감사하고 있는 듯하였다.

<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 몸을 움직이고 손발을 뻗는 자유를 누리게 되자마자, 사람들은 아이에게 새로운 속박을 가한다. 아이를 배내옷으로 감싸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다리를 끈게 펴며, 양팔을 옆구리에 붙인 상태로 반듯이 눕힌다. 아이는 온갖 종류의 끈과 형겅으로 둘러싸여 자세를 바꿀 수 없게 된다. 아이가 숨이 막힐 지경까지 꼭 조이지 않고, 입으로 배출해야 하는 침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이를 옆으로 눕혀 주기만 해도 다행이다. 아이에게는 침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머리를 좌우로 돌릴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아이는 손발을 움직이고 뻗을 필요가 있다. 작은 실 꾸러미처럼 웅크린 채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일종의 동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이 아이의 손발을 뻗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 스스로 손발을 움직이지는 못하게 한다.

심지어 아이의 머리조차 모자로 묶어놓는다. 마치 아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같다. 따라서 아이는 성장을 지향하는 신체 내부의 충동에 따라 성장에 필요한 운동을 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쓸데없는 노력을 되풀이하느라 힘만 빼고 발육이 늦어진다.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보다 배내옷에 싸여 있을 때 더 비좁고 갑갑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태라면 아이가 태어나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이의 손발을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으면 혈액과 체액의 순환이 나빠져서 성장하지 못하고 체형이 변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모두가 키가 크고 힘이 세며 신체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이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놔두면 신체가 기형이 될까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를 어떤 틀에 집어넣어 기형으로 만드는 일을 서두르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불구자만 되지 않는다면 아이의 신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가혹한 속박이 아이의 체질에 영향을 미치듯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불합리한 풍습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풍습에서 생겨난 것이다.

<다> 지난 50년간 독점이 급성장하고 경쟁이 지배하는 분야가 더 축소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논쟁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문은 이런 기형적 현상이 시장 경쟁의 필연적 결과인지 혹은 단순히 대개의 국가에서 계획한 정책들의 결과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현상의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후자가 사실임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음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현대의 자유 시장 경제 속에서 진행된 기술 발전 유형이 정말 그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독점의 성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종류였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른바 자율경쟁을 통한 기술적 요인을 독점의 성장으로 보고 있는 이들은, 대량생산이라는 현대적 방법의 더 큰 효율성 때문에 대기업이 소기업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들은 현대적 방법들이 단위당 비용의 감소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들에서 대기업의 생산이 증가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였고 그 결과 대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소기업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이들을 축출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 과정은 계속되어 마침내 각 산업에서 단지 하나 혹은 몇 개의 거대기업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의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수는 없고, 다만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증거를 살펴 받아들이는 데 만족하기로 한다.

경쟁에 있어 대기업의 효율적 우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쟁을 파괴하는 것으로 상정된 규모의 이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규모의 경제는 그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변함없이 독점을 필연적으로 탄생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대규모 생산의 이점이 반드시 경쟁의 철폐로 귀결된다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독점은 더 큰 규모에 따른 저비용이 아닌 다른 요인들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점은 공공정책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런 공공정책들이 축소될 때, 경쟁적 조건은 회복될 수 있다. <미국 임시국가경제위원회 보고서>

영국에서의 조건들을 조사하더라도 아마 매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누구라도 독점자들이 정규적으로, 그리고 자주 자신들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 권력의 도움을 얻고자 얼마나 열망하는지 관찰하였다면, 이런 독점화로의 발전이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해 별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2. <가>와 <나> 지문에서 대상의 양육(養育)에 대한 서술자의 입장을 대비하고, <나>의 입장을 유추 적용하여 <다>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술하시오. (<다>의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有機體)로 가정할 것) (1000±100자)

출제 의도

- 식물 재배나 유아 양육, 그리고 경제 계획은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영역인 것 같지만 내면의 양상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인위적인 개입을 할 때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그냥 그 개체의 자율성에 맡겨 둘 때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갈라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세 개의 다른 영역들을 '양육관'이라는 하나의 큰 틀에 배치해 대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 공통점을 포착하여 영역끼리 논리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 | | |
|---------|---|---------|
| 적용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 |
| 관련 성취기준 | 1. 도덕과 교육과정 | |
| | 과목명: 생활과 윤리 | 관련 |
| | (3)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4)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윤리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동물, 생명, 생태계를 윤리적으로 배려하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가치 태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동물중심주의 윤리, 생명중심주의 윤리, 생태중심주의 윤리의 특성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한다. ①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 윤리 | 제시문 <가> |
| | 과목명: 윤리와 사상 | 관련 |
| | (4) 사회 사상 (4)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윤리 자본주의적 경쟁 사회는 윤리적 장점과 더불어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자본주의의 윤리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장점 및 단점에 대해 토론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사한다. | 제시문 <다> |

| |
|---------------------------------|
| ①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과 윤리적 장점 |
| ② 경제적 불평등을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 문제점 |

| | | |
|--|--|---------|
| 적용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
| 관련 성취기준 | 1. 사회과 교육과정 | |
| | 과목명: 경제 | 관련 |
| | (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 제시문 <다> |
| |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적·사적인 경제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경제 사회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 (가) 분업과 특화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임을 이해하고, 개인, 기업, 국가는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특화한 후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 |
| | (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 |
| | (가) 경제 주체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 생산 비용의 절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 정부의 재정 활동과 경제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나) 재정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효율적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성장 및 안정 등을 추구)을 이해한다. | 제시문 <다> |
| (3) 시장과 경제 활동 | 문제1 | |
|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과 경제 주체 간의 상호 경쟁 측면에서 시장 경제 원리를 파악하고,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전형적인 시장 외에 노동 시장, 금융 시장과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시장의 사례를 통해 시장이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요인과 그 해결 방안 에 대해서 알아본다. (4)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사회적 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 | |

| | | |
|---------|--|---------|
| | (예)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
| | 과목명: 사회 | 관련 |
| 성취 기준 1 |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가) 개인 이해 인간은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존재이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이해하여, 시민 사회에서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며, 더 나아가 타인과 사회 공동체 및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②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관계 및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③ 개인을 둘러싼 자연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 환경과의 공존 필요성을 파악한다. [이슈 또는 문제 예시] ②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성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 ④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 제시문 <나> |

| | | |
|---------|---|------|
| 적용 교과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
| 관련 성취기준 | 1. 국어과 교육과정 | |
| | 과목명: 독서 | 관련 |
| |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글에 담긴 의미를 구성하는 독서 행위는 그 자체가 문제 해결적인 사고 과정이다. 즉, 단어와 문장의 의미 파악, 글의 전개 과정 이해, 필자의 주장이나 생각의 추론 및 타당성 판단 등 독서 과정의 매 순간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지적 사고 과정의 연속이다. 또한 독서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이기도 하다. 독서가 지니는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독서에 적용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문제1. |
| 과목명: 작문 | 관련 | |
| 성취 기준 1 |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 정보의 선별 능력과 맥락 | 문제1. |

| | |
|--|--|
| | 에 맞는 조직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독자가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 정보 중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글의 주제나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8)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작문 맥락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객관적 자료나 사실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선정한 다음에는 작문의 맥락에 맞게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
|--|--|

2.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 | | | | | |
|----------------|---------------|------|------|---------|---------|--------|
| 자료명(도서명) | 작성자(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양쪽기(『고문진보 후집』) | 백거이 | 명문당 | 1989 | 326-329 | 제시문 <가> | × |
| 에밀 | 장 자크 루소 | 책세상 | 2007 | 36~38 | 제시문 <나> | ○ |
| 노예의 길 |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나남출판 | 2006 | 88-89 | 제시문 <다> | ○ |

| 관련 교과서 근거 | | | | | | |
|------------|-------|------|------|---------|---------|--------|
| 도서명 | 저자 | 발행처 | 발행년도 | 쪽수 | 관련 자료 | 재구성 여부 |
|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 변순용 외 | 천재교육 | 2015 | 132~149 | 제시문 <가> | ○ |
| 고등학교 윤리와사상 | 박병기 외 | 지학사 | 2015 | 286~287 | 제시문 <나> | ○ |
| 고등학교 경제 | 오영수 외 | 교학사 | 2015 | 122~135 | 제시문 <다> | ○ |

문항 해설

제시문 <가> : 백거이(白居易, 772~846), 『양죽기(養竹記)』에서 발췌

제시문 <가>는 당(唐)의 대표적인 문인 중 한 명인 백거이의 『양죽기(養竹記, 대나무를 기르는 이야기)』에서 일부 발췌한 글이다.

전체적인 글의 취지는 대나무를 대함에도 정성으로 대하듯이, 훌륭한 인재를 대할 때도 그러한 정성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나, 본 문제에서 발췌한 부분은 대나무를 잘 기르기 위해 정성스런 손길을 가하는 대목이다.

발췌한 대목에서 볼 때, 대나무는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겪는다. 하나는 관상국이라는 이가 인위적 손길로 대나무를 잘 가꾸었던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속된 사람들에 의해 버려져 황폐화되었던 상황이다. 서술자는 이 두 상황을 대비하면서 대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 것은 방지되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대나무의 양육에 개입하여 대나무 사이를 틈주거나 흙을 북돋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효과를 거두어 대나무가 다시 잘 자라게 되자 이에 만족하고 있다.

이 일화에는 양육의 일반적 두 관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가 선호하는 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부의 개입없이 자연에 맡길 때 잘 자랄 것이라는 관점,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잘 자랄 것이라는 관점 중에서 서술자는 후자의 입장에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제시문 <나> : 장자크 루소(Rousseau, Jean Jacques, 1712~1778), 『에밀(Emile)』에서 발췌

제시문 <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루소가 지은 『에밀(Emile)』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서술자는 당시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어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에서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내옷과 모자 등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럼으로써 아이가 기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루소는 이러한 인위적 억압이 오히려 그 아이를 신체적 기형, 나아가 정신적 기형으로 몰고 가리라고 비판한다. 이후 인위적 억압과 구속이 없는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서 그러한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이 키도 크고 힘도 세며 신체의 균형이 더 잘 잡혀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인위적 양육은 자연을 거스르는 잘못된 것이라 보았다.

이로 볼 때, 두 가지 양육관, 즉 외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양육이 개체를 건강하게 할 것이라는 관점과 자연이 부여한 내부의 힘을 존중하는 것이 개체를 건강하게 할 것이라는 관점 중, 루소는 후자의 입장에 뚜렷이 서 있다고 하겠다.

제시문 <다> :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 『인간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발췌

제시문 <다>는 현대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인간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현대 경제의 특징 중 하나인 독점을 기형적인 문제 상황으로 지목하고,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 원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술자는 독점이라는 기형적 상황이 초래한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하나는 시장 경쟁의 필연적 결과로서 대량생산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대기업이 점차 소기업에 비해 생산성 우위를 점한 결과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인위적 공공정책들이 독점이라는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되었

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서술자는 이 중 후자의 입장에 있다. 그는 생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이 소기업에 비해 우위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러한 구도가 독점을 필연적으로 탄생시키지도 않았으며, 또 독점은 공공정책이라는 외부 통제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미국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독점이라는 문제현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술자의 논의는 비록 무생물인 경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건강한 성장을 대상의 내적 자율성에 기대느냐, 아니면 인위적 개입을 통해서 해야 하느냐 중 어느 한 입장에 서 있다는 점에서 생물의 양육, 인간의 교육 등의 분야가 지닌 고민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즉 경제를 살아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과연 외부의 통제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통제를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다.

【논제의 구성】

<가>의 대나무를 기르는 일화에서 서술자가 선호하는 양육관을 인지할 수 있는가, <나>의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서술자가 선호하는 양육관을 인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둘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하였다. 이후 <나>의 입장을 <다>에서 보이는 경제의 문제상황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가>와 <나>는 대비되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나>가 유추 적용될 때, <다>의 독점에 대한 문제상황의 해법은 “인위적 개입을 하지 말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게된다.

| 채점 기준 | | |
|-------|--|----|
| 하위 문항 | 채점 기준 | 배점 |
| | (가)의 서술자가 보이는 행위를 통해 자연과 인위 중 인위적 양육관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여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3점) (나)의 서술자의 인식을 통해 자연과 인위 중 자연적 양육관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여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가?(3점) (다)의 서술자가 (다)의 문제 상황인 독점에 대해 ‘자연적 해결’을 주장하리라는 것을 유추 적용하여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가?(3점) | |
| | 위의 각 항에 대해, 내용 파악의 정도가 상(上)인 경우, 3점, 중(中)인 경우 2점, 하(下)인 경우 1점. 그리고 문장, 어휘, 음절 차원의 어법을 준수 정도가 상(上)인 경우 감점 없음. 문장, 어휘, 음절 차원의 어법을 준수 정도가 중(中)인 경우 3점까지 감점 문장, 어휘, 음절 차원의 어법을 준수 정도가 하(下)인 경우 6점까지 감점 | |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을 잘 양육하기 위한 실천 혹은 방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육관은 대비적으로 나타난다.

<가>의 서술자는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대나무들을 살려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대나무가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훌륭한 분의 손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잘 자라지 못했던 이유를 '천하고 속된 사람에 의해 버려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버려졌던 대나무들을 다시 살려 내기 위해, 이전의 훌륭한 주인이 했듯이 잡목을 잘라 내는 등의 인위적 손길을 가하고 있다. 이 점으로 볼 때 <가>의 서술자는 '양육에는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믿음과 입장을 지닌 이라 볼 수 있다.

<나>의 서술자는 아이의 양육에 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때 그들이 기형적으로 자랄까봐 염려하여 배내옷 등의 인위적 틀로 아이의 자유로운 성장을 제한하는 관습에 주목하고 있다. 이후 그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관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인위적 조처 없이 아이를 자유롭게 자라게 놓아 둔 지역의 사람들이 오히려 기형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란 예를 보임으로써 자유로운 방식의 양육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로 볼 때 <나>의 서술자는 '대상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문제상황은 '현대 경제가 독점이라는 기형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의 서술자는 이렇게 된 원인은 시장의 자율적 경쟁이 아닌 정부의 인위적 공공 정책들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 경제를 유기체로 가정할 때, 이 문제 상황에 대한 <나>의 해결 방식을 유추적용하면 '공공정책과 같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서술자가 지닌 양육관은 외부의 인위적인 제약이 개입되면 필연적으로 기형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유기체 자신의 자연적 힘에 맡겨둘 때 오히려 건강과 균형을 회복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 자연계열 문항해설

[문항정보]

일반정보

| | | |
|----------------------|---|-------------------------------|
| 유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 |
| 전형명 | 모의논술 | |
|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 자연 / 2-1(a), 2-1(b), 2-2(a), 2-2(b), 2-2(c) | |
| 출제 범위 |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 수학, 수해, 미적분,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
| | 핵심개념 및 용어 | 경우의 수, 확률, 미분, 최대와 최소 |
| 예상 소요 시간 | 50분/전체 60분 | |

문항 및 제시문

<가> 0이상의 정수 c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게임1>을 생각해보자. 공이 1개 이상씩 들어 있는 두 바구니 X, Y 에서 두 플레이어 A와 B가 번갈아 공을 꺼낸다. 이때, 각 플레이어는 두 바구니 중 한쪽을 선택하여 공을 꺼내거나, 양쪽 바구니 모두에서 공을 꺼낼 수 있는데, 두 바구니 중 한쪽을 선택하여 공을 꺼낼 경우에는 개수에 제한 없이 한 개 이상의 공을 꺼낼 수 있고, 양쪽 바구니 모두에서 공을 꺼낼 경우에는 두 바구니에서 꺼내는 공의 개수의 차이가 c 이하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c=0$ 이면 두 바구니에서 꺼내는 공의 개수는 같다. 이러한 규칙으로 게임을 하여 두 바구니를 동시에 비우는 플레이어가 승자가 된다. 즉,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두 바구니에서 더 이상 꺼낼 공이 없으면 패자가 된다.

$c=0$ 인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 두 바구니 X 와 Y 에 공이 각각 10개와 20개가 들어있고 플레이어 A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가상의 게임 결과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바구니 X, Y 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를 순서쌍으로 나타내어 표기하기로 하자. 즉, (x, y) 는 X 에는 x 개의 공, Y 에는 y 개의 공이 남아 있는 상태를 표시한다.

$$\begin{aligned} \text{플레이어} &= & A & & B & & A & & B & & A & & B & & A \\ (x, y) &= & (10, 20) & \rightarrow & (10, 14) & \rightarrow & (2, 6) & \rightarrow & (2, 5) & \rightarrow & (2, 1) & \rightarrow & (1, 1) & \rightarrow & (0, 0) \end{aligned}$$

위 도표에서 A가 먼저 Y 에서 6개, B가 X, Y 양쪽에서 8개를 꺼내고, 다시 A가 Y 에서 1개, B가 Y 에서 4개를 꺼내고, 마지막으로 A가 X 에서 1개, B가 양쪽에서 1개씩을 꺼내면 두 바구니 모두에 남은 공이 없어 B가 승자가 된다.

이제 <게임1>의 필승전략을 구해 보자. 만일 플레이어가 A가 적절한 순서쌍을 만들어서 플레이어가 B의 플레이에 관계없이 다음 차례에 $(0, 0)$ 을 만들 수 있다면 A가 승자가 될 것이다. A가 만든 이러한 순서쌍을 '필승전략'이라고 하자. $c=0$ 인 경우에 $(1, 2)$ 는 필승전략이다. 왜냐하면 상대가 바구니 X 에서 공을 꺼내어 X 가 0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플레이어는 바구니 Y 의 공을 모두 꺼낼 수 있으므로 $(0, 0)$ 을 만들 수 있다. 또 상대가 X 에서 공을 꺼내지 않는 경우에는 Y 에서 한 개 이상의 공을 꺼내야 하므로 남은 공에 대한 순서쌍은 $(1, y)$ (단, y 는 0 또는 1)이다. 다음 플레이어는 X 와 Y 에 남은 공을 모두 꺼낼 수 있으므로 $(0, 0)$ 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순서쌍 $(1, 2)$ 를 만든 플레이어는 승자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순서쌍 $(2, 1)$ 도 필승전략이다.

다음은 <게임2>에 대한 설명이다. <게임2>는 아래 그림과 같은 체스판에서 두 사람이 번